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金芝媛 鄭素淵 崔兌源
 鄭惠玉 朴南貞
 디자인 — 尹貞子 南明希
 사진 — 金弘鎮

업무차장 — 尹東鎔
 업무·광고 — 李義天 崔炳天
 金允淳 金敏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
 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宰彬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彥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吳
宋相庸	申福龍	慎鍾寬	安秉一
安輝滄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謙淑	李環燕	李光周
李基相	李斗暎	李萬烈	李炳勛
李相日	李勝羽	李元載	李重漢
李姬載	林常燮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爽鍾	鄭雲暎	鄭晉錫
鄭鎮弘	曹南鉉	曹大鉉	崔鍾庫
韓相震	韓勝憲	許頌烈	洪廷善
黃鉉產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 · 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측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의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프리즘

선거공약에서도 빠진 문화정책

막바지에 접어든 선거열기가 불에 델듯 뜨겁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유권자에게 도드라지게 내보여야겠다는 후보자들의 마음이야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매년 선거시즌이면 쏟아지는 각종 형태의 홍보물은 ‘한 표에 애타는’ 후보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한다. 이러한 홍보물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책.

14대 총선을 앞두고 쏟아져 나온 현역의원 및 의원후보들의 저서는 줄잡아 50여종을 넘는다. 개중에는 자서전이나 전기도 있고 정치평론집이나 연구보고서나 의정활동기, 다른 사람이 집필한 평전도 있다. 이렇듯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들 책은 선거전을 겨냥, 후보의 치적이나 인간됨됨이를 자랑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서는 공

통되며 대부분이 급조된, 대필된, 자화자찬 일색이라는 점에서 빈축을 사기도 한다.

책의 내용이 어땠든, 그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어땠든 그것을 문제삼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전에 없이 많은 수의 후보자들이 홍보술의 일환으로 책의 출판을 선택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짧은시간의 연설로, 전단이나 팜플렛으로 담아내지 못한 ‘자기자랑’을 하기에 유효한 그릇으로 책의 효용가치를 이들이 인정했다는 데서 우선 관심을 끈다.

그리고 그 관심은 이들이나 소속된 정당의 선거공약을 훑으면서 쓰디쓴 느낌으로 변한다. 국회의원이 할 일이 어디 한두가지이랴만 책의 효용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이용할 줄은 아는 많은 수의 후

보자들 중 좁게는 출판정책에 대해, 범위를 넓혀서는 문화정책에 대해 일정한 입장이나 견해를 지닌 사람이 없다는 (공약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확인 때문이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후보로 등록된 이들 중에는 출판계 인사도 더러 있는 모양이어서 그 쓴 느낌은 깊이를 더한다. 예산안 책정에서는 ‘불요불급한’, 그래서 언제든 필요에 의해 삭감될 수 있는 항목으로 떠밀려 다니고 도무지 출판과는 무관한 재무부에 의해 ‘출판시장개방’을 통보받고 속수무책 일 수밖에 없는 출판 및 문화의 정책부재와 책임부재의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까닭이다.

누구나 목소리를 높이고 해결을 약속하는 정치, 경제 등의 문제 뒤에 숨죽이고 있는,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긴요한 문화와 그 한부분을 이루는 출판부문의 문제들도 있음을 기억하는 후보를 염원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까.

— 박남정 기자

재미있는 책이야기

철도원의 아들로 태어나 칠레인들로부터 숭앙받았던 민중시인이며, 1972년에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던 파블로 네루다(1904~1973). 자신이 걸은 삶의 역정을 섬세한 문장과 필치로 그려낸 그의 자서전 「Memoris」에는 첫시집인 「황혼」과 스페인에 관한 시집 「마음속의 스페인」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실려 눈길을 끈다. 번역본 「스무개의 사랑의 시와 하나의 절망의 노래」(공간)에서 발췌해 다음에 인용 소개한다.

▲첫번째 시집 1923년, 나의 첫시집 「황혼」이 나왔다. 그 출판비용을 대느라고 매일 허둥댔다. 나중에는 가구도 몇점 팔아야 했다. 아버지로 부터 물려받은 작은 두개의 국기가 교차하여 새겨진 시계도 전당포에 들어갔다. 나의 검정색 옷도 시계와 같은 운명을 따르게 되었다. 그런데 출판업자는 목석 같은 사람으로 편집이 완료되고 표지장정이 끝났을 때, 악마같은 표정으로 “안돼요. 출판비용을 모조리 지불하기 전에는 한권의 책도 갖고 갈 수 없어요”하고 말했다. 평론가 알로네가 친절하게도 돈을 마저 지불하자 욕심쟁이 출판업자는 그 돈을 주머니에 처넣었다. 어깨에 나의 시집들을 들쳐매고 거리로 나섰을 때 비록 구두에 구멍은 나 있었어도 흥겨웠다.

내 첫번째 시집! 나는 소설가의 임무란 신비나 요술과 관계가 없으

며, 시인의 임무는 적어도 모든 사람을 위한 개인적 노력이어야 한다고 항상 주장해왔다. 시와 밀접한 것은 빵 한조각이요, 질그릇 접시요, 서투른 솜씨로나마 정성스럽게 다듬은 한조각의 나무다. 어떠한 장인도 자신이 만들어낸 최초의 작품을 바라던 대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일생에 한번 겨우 느끼는 황홀감을 시인은 첫작품에서 경험한다. 아마 그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어떤 책이 그보다 훨씬 발행부수가 많고 더욱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을지라도, 시가 포도주처럼 다른 언어의 잔에 채워져 지구의 다른 지역에서 임혀지고 향기를 내뿜을지라도 최초의 시집이 나왔을 때의 기쁨보다는 못하리라. 맨 처음 출판한 책의 잉크 냄새를 맡고 종이의 바삭거리는 소리를 듣는 기쁨의 순간, 날개를 푸드덕거리는 소리나 정복된 산꼭대기에서 피는 최초의 꽃을 갖는 기쁨의 순간은 시인의 일생에 단 한번 찾아온다.

▲스페인에 관한 나의 책 시간이 흘렀다. 공화국의 패색이 짙어지기 시작했다. 시인들은 스페인 민중의 편에 섰다. 그래서 페데리코는 살해된 것이었다. 미구엘 에르난데스는 목동의 노래에서 투쟁의 노래로 경향을 바꿨다. 그는 군복을 입고 전선에서 시를 읊었다. 마누엘 알톨라기레는 여전히 인쇄기계를 돌리고 있

었다. 그는 동부전선의 헤로나 근처에 있는 오래된 수도원에 인쇄기계를 하나 설치해두었다. 나의 시집 「마음속의 스페인」은 거기서 인쇄한 것이다. 그토록 수많은 책이 있는 세상에서 나의 책만큼 야릇하게 탄생하여 야릇하게 죽어간 책은 거의 없을 것이다.

동부전선의 군인들은 조판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종이 없었다. 그들은 낡은 물레방아간을 빌려 거기서 종이를 만들고 인쇄를 하기로 했다. 기묘한 배합이 진행되었다. 적군의 깃발이나 피묻은 무어군 병사의 옷 등 아무것이나 다치는 대로 집어넣었다. 잡동사니 재료에다 제지술이라곤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의 솜씨였지만 종이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이 책 원본은 아직도 몇권이 남아 있는데 인쇄술과 기막히게 제조된 종이 놀람을 금치 못하게 한다. 몇년후 나는 워싱턴에 있는 의회도서관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희귀한 책 중의 하나로 그중 한 권을 보게 되었다. 이 책이 발견되자마자 공화국 정부가 패배하여 이 책이 살아남을 길은 막혀버렸다. 수십만명의 피난민이 스페인을 탈출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이 피난길은 스페인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었다.

이 피난행렬에는 동부전선의 생존자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중에는

마누엘 알톨라기레와 그 책을 만든 병사들도 있었다. 죽은 앞에서 나의 시집을 제작해낸 그들에게는 내 책이 자랑스러웠다. 피난 보따리 속에 옷가지와 음식을 챙겨넣는 대신에 내 책을 여러권 집어넣은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 보따리를 짊어지고 프랑스로의 긴 피난길을 재촉했다.

끝없는 피난행렬 위로 수백명의 폭격이 가해졌다. 병사들은 쓰러지고, 그 책들도 길위에 흩어졌다. 살아남은 자들은 끝없는 도망의 길을 계속했다. 국경을 넘어선 스페인 난민들에게는 참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쟁의 포화속에서 태어나 닳아져가던 그 책들은 모닥불을 피우는 데 쓰여지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구엘 에르난데스는 칠레 대사관에 피난처를 구했다. 그 대사관은 전쟁 중에 4천명의 프랑코 추종자들이 임시로 수용되어 있던 곳이었다. 카롤로스 모를라 린치대사는 자신이 그의 친구라고 하면서도 그 위대한 시인을 보호해 주기를 거부했다. 며칠 후 그는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3년후 그는 감옥에서 폐결핵으로 죽었다. 그렇게 자유를 갈구하던 그 나이팅게일은 답답한 감옥에서 살아날 수가 없었다.

나의 영사업무는 끝이 났다. 내가 공화국 정부편을 들었기 때문에 영사직에서 해임시킴으로 결정된 것이